

광주FC ‘질문왕’ 박성훈 “프로 데뷔전 기다려진다”

제공권 장점 U22 센터백
후아힌 훈련서 득기 품어
2026시즌 출전 준비 완료



광주FC의 ‘질문왕’ 박성훈이 프로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광주FC는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후아힌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했다. 이정규 감독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선수 등록 금지 제재로 인해 소수 인원으로 시즌을 시작해야 하지만 선수들의 의욕은 넘쳤다. 선수들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즌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원으로 6월 이적 시장까지 운영해야 하는 만큼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출전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수비수 박성훈도 ‘기회’를 보면서 칼을 갈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삼성에서 임대 영입된 박성훈은 ‘특급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던 선수다. U-13, U-16, U-17 대표팀을 거친 그는 2023년 수원삼성과 만17세에 준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광주는 190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진 센터백이자 U22 자원으로 박성훈을 주목했다.

하지만 팀이 리그, ACLE, 코리아컵 일정을 이어가면서 쉴 틈 없는 시즌을 보냈지만 박성훈은 한 번도 팬들 앞에 서지 못했다. 몇 차례 엔트리에 이름은 올렸지만 끝내 이정규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광주의 가장 화려했던 시즌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박성훈은 ‘차라리 잘 됐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훈은 “일단 팀이 있으니 나도 그 순간을 함께한 것이다. 같이 기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욕심이 커졌다. 경기장 안에서 팀을 위해서 땀 흘려서 땀 흘려서 같이 훈련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먼저 느낀 게 잘된 일인 것 같다”며 “작년에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경기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FC의 장신 수비수 박성훈이 태국 후아힌 캠프에서 이정규 감독(왼쪽), 베테랑 주세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작년에는 형들과 차근차근 경험을 하면서 기반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배우는 게 더 많았다”고 지난 시즌을 돌아봤다.

배움의 시간을 보낸 그에게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박성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후아힌 캠프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훈련이 끝나고 난 뒤 그는 선배, 이정규 감독을 붙잡고 끊임 없이 질문했다.

‘질문왕’ 박성훈은 “내가 모자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훈련하다가 실수한 것, 거기서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 우리팀은 감독님 이랑 코치님, 형들 다 질문하면 열심히 대답해 주신다. 그래서 쉽게 다가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처음에 안 됐던 것들인데 되는 장면도 나오니까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박성훈은 강도 높은 기술 훈련과 질문의 시간을 통해 데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차 남해 동계훈련을 통해 시즌 준비를 끝낼 생각이다.

박성훈은 “자신은 있지만 아직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영역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다. 연습경기하면서 실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팀에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하겠다. 센터백 중에서 피지컬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필을 하겠다”고 2026시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준영 “부상 없이 강한 KIA 불펜 보여줄 것”



‘슬라이더 장인’으로 400경기 필승조 우뚝... 3년 FA 성과
“후배 지도·건강 관리로 2026시즌 불펜 주축 역할하겠다”



KIA 좌완 이준영이 일본 오시마야마 캠프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꿈을 이룬 KIA 타이거즈 좌완 이준영이 후배들과 또 다른 꿈의 순간을 만든다.

이준영은 중앙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5년 KIA 유니폼을 입은 대졸 12년 차 선수다. 177cm, 투수로서 큰 키가 아니고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 ‘슬라이더 장인’으로 통하는 그는 슬라이더 하나만으로 변화 많은 치열한 불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2016년 5월 25일 삼성전을 통해 프로 무대에 첫선을 보인 그는 상무 시절을 제외하고 꾸준히 KIA 불펜을 지키면서 400경기에 출전했다.

이준영은 큰 부상 없이 꾸준한 기량으로 1군에서 활약하면서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A 계약도 맺었다.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12억원. 대형 계약은 아니지만 거친 불펜에서 버티며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이준영은 “FA가 꿈이었었는데 이뤄졌다. 경쟁도 하고, 내 퍼포먼스도 내야 하는데 그렇게 견디고 견뎌서 10년을 버텼다. 만족스럽다”고 웃었다.

10년을 버틴 이준영의 역할은 ‘원포인트’다. 상황에 맞춰 단 한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 기다리는 게 그의 일이다.

마운드에서 많은 공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다.

이준영은 “원포인트가 쉽지 않다. 한 타자 상대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교체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 좋다. 불넷 안 주고, 안 맞으려고 하니가 부담도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그는 어느새 마운드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고참이기도 하다.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불펜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다.

이준영은 “몸 상태에 따라서 오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배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불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라. 앞으로 야구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며 “후배들 입장에서는 욕심 많고, 나이도 어리고, 보여줘야 하니까 의욕이 앞서서 하는 게 맞지만 몸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상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시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몸 관리다. 그는 광주에서 팀에 재합류한 장세홍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새 시즌을 준비했다.

올 시즌에도 우선 목표는 ‘건강’. 지난 시즌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후배들이 많았던 만큼 올 시즌에는 모두 건강하게 KIA 불펜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이준영은 “지난 해에는 아픈 애들이 많았다. 기량이 좋았다가 떨어진 동생들도 있다. 작년에는 불펜 기록이 많았다. 올 시즌에는 아픈 동생들도 다시 돌아온다. 안 아프고 다들 준비를 잘해왔다”며 “(전)상현, (정)해영 다 불펜에서 역할을 했던 애들이라서 우리 불펜이 다른 팀에 밀리지 않는다. 기세 좋은 (박)도규도 있고, (최)지민도 자기 볼 찾으면 잘 할 수 있다. (김)기훈이도 많이 좋아졌다. 올해 진짜 좋을 것 같다. 좋은 시즌 보내겠다”고 2026시즌 기대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WBC 우승팀 포상금 12억

선수 최저연봉 3300만원으로 인상

KBO가 올해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구 대표팀이 우승하면 포상금 12억원을 지급한다.

KBO는 지난 20일과 27일 열린 제1차 실행위원회와 이사회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KBO는 올해 WBC부터 8강 진출 시 포상금 4억원을 지급하고 4강에는 6억원, 준우승 8억원, 우승 12억원으로 대표팀에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포상금은 최종 성적 기준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또 2027년부터 선수 최저 연봉을 3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서도 비디오 판독이 일부 개정됐다.

먼저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을 제한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략적 오버런’은 특히 주자가 3루에도 있을 때 2루 포스 플레이 상황에서 1루 주자가 2루를 점유하기 위한 슬라이딩 대신 베이스를 통과하듯 밟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플레이다.

이때 2루를 통과한 주자는 이후 런다운에 걸려 결국 태그아웃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자가 송구보다 먼저 2루를 밟는 순간 포스 플레이가 해제되므로 3루 주자가 2루 주자의 태그 아웃보다 먼저 홈을 밟으면 득점이 인정된다.

또 비디오판독 소요 시간 단축 등을 위해 무선 인터컴 시스템을 2026시즌 도입한다.

무선 인터컴은 1, 2루심이 착용하며 비디오판독 상황 발생 시 별도 이동 없이 판독 센터와 교신할 수 있어 경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한화, 김범수 FA 보상선수로 KIA 양수호 지명

좌완 김범수의 FA 보상 선수로 우완 양수호가 고향팀으로 이적한다.

한화 이글스가 김범수의 보상 선수로 KIA 타이거즈의 2년 차 투수 양수호를 지명했다.

2006년생인 양수호는 공주고 출신으로 2025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았다. 최고 153km의 빠른 볼을 가진 그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구사한다.

프로 첫해 1군 무대에는 모르지 못한 양수호는 퓨처스 8경기에 나와 7.2이닝을 소화하면서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70을 기록했다.

순혁 한화 단장은 “양수호는 2년 전 드래프트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본 파이어볼러다. 체력 등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면 김서현, 정우주와 함께 구

위형 불펜 요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KIA는 지난 22일 한화에서 활약했던 김범수와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5억원·연봉 12억원·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20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B등급인 김범수를 영입한 KIA는 한화에 ‘25인 보호 외 1명+전년 연봉 100%’ 또는 ‘전년 연봉 200%’를 내줘야 했고, 한화는 양수호와 전년 연봉 100%인 2억원을 선택했다.

한편 일본 아마미모시마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고 있는 양수호는 31일 귀국해 한화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제공>